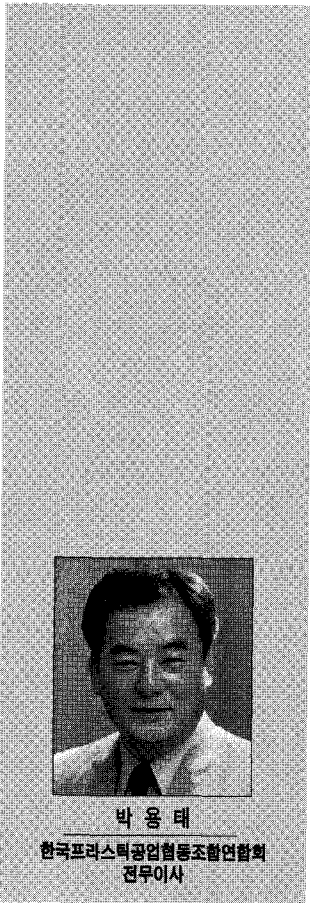


# 중소플라스틱업계 당면문제 및 나아갈 방향

Viewpoints on the development of Korea Plastic Industry



박용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합성수지 시장은 작년 한해 내수부진과 SARS 여파로 중국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미국-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때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SARS의 진정과 전쟁의 조기종결로 후반 기에는 세계경기에 온기가 돌면서 회복세로 전환되어 2.6%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석유재고의 전폭적인 증가발표와 OPEC 총회에서 감산합의로 인한 유가의 상승과 주요 유화 공장들의 화재 등으로 문제가 생겨 원자재 수급이 매우 어려워졌으며 중국 수요의 증가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른 재활용의무 이행과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부과, 일회용 합성수지 포장재 규제 등 정부의 여러 정책적인 규제로 인해 합성수지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여건이 수월한 중국,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플라스틱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심각한 시점에 직면하고 있어,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값 급등, 해상운임 상승, 원화 가치강세 등 삼중고로 연초부터 휘청거리고 있으며, 석유수출기구(OECD)가 2단계 감산계획의 실시를 결정하자, 원자재 파동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 품질관리 시스템 적용, 우수제품 생산 필요

위한 원자재 구하기에 전력을 쏟고 있으나 치솟기 시작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은 새해 들어선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기초유분인 에틸렌의 아시아 12월 평균가는 615달러에서 1월말 745달러로 한달사이 무려 130달러(21%)나 올랐고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및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은 작년 12월 평균보다 톤당 135달러~165달러 오르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러다 보니 올해 예정된 설비투자나 공장증설 계획 등 사업계획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중소기업체는 조업감축도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현재 원자재 인상폭에 대한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적자생산을 할 수밖에 없어 경영난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생산업체의 조업중단에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조달청 및 공공기관의 계약 납품함에 있어서도 정부의 원자재 비축물량부족과 일부기업의 부도덕한 원자재의 매점매석과 사재기, 그

리고 원자재 수출확대로 인한 원자재부족 등의 여러 여건 속에 폭등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가격적용은 고사하고 예산부족강조로 중소기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납품이 속출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 수급불안의 지속과 환경문제의 심화 등으로 플라스틱산업을 둘러싼 산업여건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 하다.

더욱이 원자재 수급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개별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플라스틱업계의 공동현안으로 업계와 정부의 관련 부서간에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임이 틀림없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및 연구 노력으로 국내 플라스틱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의 적용으로 실용성과 내구도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현재의 범용합성수지에서의 치열한 가격경쟁력에 의한 출혈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플라스틱 업계의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